

성령론

사순도 지음



Holy Spirit

성령론

사 순 도 지음

성령의 계시와 인도로 완성된 이 책은 성경에 산재하는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수집 정리하여 15장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제1장부터 제8장 1절까지는 본회(참예수교회 대만총회)에서 발간하는 『성령보(聖靈報)』 제74호(1956년)부터 제96호(1958년)까지 연재했는데, 보완할 곳이 많이 발견되어 나중에 수정 증보하였다. 그 후 필자는 다른 성업으로 바빴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 사실에 대한 자료 수집이 미흡하여 유감스럽게도 수 년 동안 집필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성령보』 제158호(1963년)부터 성령의 인도로 필요한 자료들을 입수하고, 다시 연재하기 시작하여 제183호(1965년)까지 독자들과 지면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 후 4년이 지나고 이 책이 완전히 탈고됨으로써 10년 가까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었다. 1963년 4월에 본회 대만총회에서 발간하였던 『성령론』은 총 11장으로, 각 교파들이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에서 토론하기 위해 쓴 것인데, 내용은 비록 간략하지만 바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성령의 교의(敎義)를 학습하기에는 유익할 것이다. 이 책 『성령론』을 편찬한 목적은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본회 신학원(참예수교회 대만총회 신학원)이 창립된 1963년 이후 미래의 일꾼이 될 신학생들에게 신학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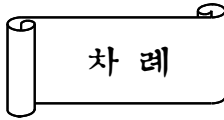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성립에 있어서 성령은 지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회의 중요한 교의(敎義)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회의 사역자들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성령의 세례를 추구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영광이 오늘날에 재현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교회의 창립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날 탄생하였다. 성령은 또한 교회의 유일한 치리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계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차지해야 할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고 성령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셋째, 성도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큰 축복을 받는 자리까지 전진하게 하고자 이 책을 썼다. 성령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성령은 신앙생활의 주관자이시며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유일한 조력자(助力者)이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신도들의 대다수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형편에 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신앙생활의 주관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수 년 동안 원고를 작성하고 이 책이 완성되어 출판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볼 때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필자는 천학비재(淺學非才)의 약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사업의 완성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부디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갈구하는 모든 독자들이 지혜를 얻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모든 찬송과 존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아멘.

1966년 2월 8일 참예수교회 대만신학원 사순도.



제 1 장 무엇이 성령인가?

제 1절 성령의 위격(位格) > 19

제 2절 성령은 누구이신가? > 21

1.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다 > 22

2.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다 > 23

제 3절 신관에 대한 탐구 > 24

1. 성경의 주제 > 25

2. 영(靈) 안에서의 일치(一致) > 27

3.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 > 30

제 4절 몇 가지 난제들 > 32

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칭호 > 33

2.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칭한 점 > 33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 나타나신 점 > 35

4. 바울의 축복 > 36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서술 > 37

제 5절 성경에 부합되는 신관(神觀) > 37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 38

2. 아나니아의 거짓말 > 39

3. 성령의 내주 > 40

4. 유력한 대변자(代辯者) > 41

5. 천지만물의 창조주 > 41

제 2 장 성령의 명칭

- 제 1절 성령 > 43
- 제 2절 진리의 영(靈) > 44
- 제 3절 보혜사 > 44
- 제 4절 지혜와 계시의 영 > 48
- 제 5절 기 타 > 50
 - 1. 참 신의 영(靈)을 나타내는 명칭 > 50
 - 2. 예수의 영임을 나타내는 명칭 > 50
 - 3. 존귀함을 나타내는 명칭 > 50
 - 4. 효용을 나타내는 명칭 > 51
 - 5. 성정(性情)을 나타내는 명칭 > 51

제 3 장 성령의 상징

- 제 1절 비둘기 > 53
- 제 2절 이슬 > 55
- 제 3절 비 > 56
- 제 4절 물 > 57
- 제 5절 강물(江河) > 59
- 제 6절 기름 > 61
- 제 7절 도장(印) > 62
- 제 8절 보증 > 64
- 제 9절 불 > 65
- 제 10절 구름 기둥과 불기둥 > 66
- 제 11절 빛 > 68
- 제 12절 칼(劍) > 69
- 제 13 절 바람 > 71

제14절 일곱 개의 눈(眼) > 72

제 4 장

성령과 교회

제1절 교회의 정의(定義) > 74

제2절 교회의 본질 > 76

제3절 교회의 유래 > 77

제4절 교회가 구비해야 할 조건 > 77

1.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한다 > 78
2. 교회에는 파송된 목회자가 있어야 한다 > 79
3.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터로 삼아야 한다 > 80

제5절 교회를 치리하시는 성령 > 81

1. 성령은 교회의 유일한 치리자이시다 > 81
2. 성령께서 일꾼을 세우신다 > 82
3. 성령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 > 85

제6절 교회 설립의 은사 > 87

1. 초월적 깨달음의 은사 > 87
 - (1) 지혜의 말씀 > 87
 - (2) 지식의 말씀 > 88
 - (3) 분별의 영 > 88
2. 초월적 사역의 은사 > 89
 - (1) 믿음 > 89
 - (2) 치유 > 90
 - (3) 능력을 행함 > 91
3. 초월적 구변의 은사 > 92
 - (1) 예언하는 은사 > 92
 - (2) 각종 방언하는 은사 > 93
 - (3) 방언 통역의 은사 > 94

제7절 은사의 기초 > 95

1. 고린도교회의 오류 > 96
2. 사랑으로서 기초를 삼는 은사 > 97
3. 거룩한 사랑과 자연적 사랑 > 99

제8절 오직 하나뿐인 교회 > 100

1. 성전은 오직 하나이다 > 100
2. 몸은 오직 하나이다 > 100
3. 신부는 오직 하나이다 > 101
4.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이다 > 102
5. 참 포도나무는 오직 한 그루이다 > 102
6. 주의 양은 오직 한 무리이다 > 102
7. 방주는 오직 하나이다 > 103
8. 취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이다 > 104

제9절 교회는 반드시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 > 104

1. 위슬로프(F. Wisloff)의 주장 > 104
2. 교회 연합은 주 예수의 뜻 > 106
3. 어떻게 교회의 합일을 촉진할 것인가? > 109
 - (1) 주의 이름 아래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 109
 - (2)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 109
 - (3) 진리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 110

제 5 장 성령과 성도

제1절 성령(聖靈)과 칭의(稱義) > 112

1. 칭의란 무엇인가? > 112
2. 어떻게 칭의를 받을 것인가? > 113
3. 성령을 의지한 칭의(稱義) > 115

제2절 성령과 성화 > 117

1. 성화란 무엇인가? > 117
2.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 > 118

- 3. 성화에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 119
- 4. 성령은 성화의 조력자이다 > 121
- 제3절 성령(聖靈)과 구원(救援) > 123
 - 1. 구원(救援)은 무엇인가? > 123
 - 2. 성령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근거 > 124
- 제4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 126
- 제5절 천국 기업(基業)의 보증 > 127
- 제6절 산 소망을 주는 성령 > 129
- 제7절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 131
- 제8절 능력을 주시는 성령 > 133
 - 1. 증거하는 능력 > 133
 - 2. 잘못을 드러내는 능력 > 134
 - 3. 기적을 행하는 능력 > 135
 - 4. 새롭게 하는 능력 > 136
- 제9절 신도를 대신하여 기도함 > 138

제 6 장

성령의 역사(役事)

- 제1절 자기를 책망케 하시는 성령 > 142
 - 1.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 143
 - 2. 의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 145
 - 3.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 > 146
- 제2절 주 앞에 이끄시는 성령 > 147
- 제3절 사죄케 하시는 성령 > 149
- 제4절 해방케 하시는 성령 > 151
- 제5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 > 152
- 제6절 정죄(定罪)하시는 성령 > 153
- 제7절 일꾼을 보내시는 성령 > 154

제 7 장

성령 주심의 약속

제1절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 155

1. 모세의 예언 > 155
2. 다윗의 예언 > 156
3. 솔로몬의 예언 > 157
4. 이사야의 예언 > 157
5. 에스겔의 예언 > 160
6. 호세아의 예언 > 162
7. 요엘의 예언 > 162
8. 스가랴의 예언 > 163
9. 말라기의 예언 > 165
10. 세레 요한의 예언 > 167

제2절 주 예수의 약속 > 168

1. 십자가 사건 전의 약속 > 169
2. 부활 후의 약속 > 177

제 8 장

성령의 강림

제1절 이른 비가 먼저 내림 > 181

1.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약속 > 182
2. 이른 비 성령 강림의 역사 > 183

제2절 성령 강림 중단 > 185

1. 성령 강림의 중단에 관한 예언 > 185
2. 성령 강림 중단의 예표 > 189
3. 성령 강림 중단의 역사 > 190

제3절 늦은 비가 후에 내림 > 193

1.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예언 > 193

2.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예표 > 195
3.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장소 > 198
4.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역사 > 202
 - (1) 세계 각국의 오순절 운동 > 203
 - (2) 참예수교회의 발원(發源) > 210

제 9 장 성령의 세례

제1절 성령 받은 증거 > 228

1. 방언을 말함 > 230
2. 몸의 진동 > 240
3. 보고 들을 수 있음 > 241

제2절 방언의 효용 > 243

1. 대신 간구함 > 244
2.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가 됨 > 245
3. 자기의 덕을 세움 > 247
4. 교회의 덕을 세움 > 250

제3절 특수한 은사 > 252

1. 고린도전서 14장의 정의(正意) > 257
2. 오순절의 경험 > 262

제 10 장 성령의 감동

제1절 일반적인 그릇된 관념 > 274

제2절 각 시대의 성령 감동의 역사(役事) > 278

1. 구약시대 > 278
 - (1) 선지자를 감동시킴 > 279
 - (2) 사사를 감동시킴 > 280

- (3) 제사장을 감동시킴 > 281
- (4) 왕을 감동시킴 > 282
- (5) 기타 > 283
- 2. 이른 비 성령이 임하시기 전 > 285
 - (1) 예수의 강생에 관하여 > 285
 - (2) 예수의 공적에 관하여 > 286
 - (3) 예수의 신분에 관하여 > 287
- 3. 이른 비 시대 > 290
 - (1)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감화함 > 290
 - (2) 교회를 흥왕케 함 > 292
 - (3) 사명을 맡기심 > 294
 - (4) 미래의 일을 계시(預示) > 295
 - (5) 사람을 거룩하게 함 > 296
- 4.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 시기 > 297
 - (1)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실천하게 함 > 298
 - (2)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게 함 > 300
 - (3) 사람을 감동시켜서 문서선교에 힘쓰게 함 > 301
- 5. 늦은 비 성령 강림의 시대 > 303
- 제3절 일반 개신교회가 마땅히 취할 태도 > 306
 - 1. 성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라 > 307
 - 2. 가말리엘의 권면을 깊이 생각하라 > 308
 - 3. 아볼로의 겸손을 배우라 > 309
 - 4. 세례 요한을 주목하라 > 311

제 11 장

성령의 세례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오류

- 제1절 오순절은 영원히 재현되지 않는다? > 314
- 제2절 모든 기독교 신도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 328
- 제3절 성령의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 > 336

제 12 장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 제1절 참된 교회에 속한다 > 355
- 제2절 진리에 순종한다 > 358
- 제3절 '할렐루야'를 외친다 > 361
- 제4절 죄 사함의 세례(침례)를 받는다 > 365
- 제5절 안수를 받는다 > 369
1. 연합의 표시 > 369
 2. 축복의 안수 > 369
 3. 병 고침의 안수 > 370
 4. 은사를 나누어 줌 > 370
 5. 전례(典禮-의례)의 하나 > 371
 - (1) 성직 안립 > 371
 - (2) 일꾼의 파견 > 371
 6. 성령을 받게 하는 안수 > 372
 - (1) 사마리아 성 사람의 체험 > 372
 - (2) 사울의 체험 > 372
 - (3) 에베소 제자들의 체험 > 373
- 제6절 가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다 > 374
- 제7절 믿음과 전심(專心)으로 구한다 > 378
- 제8절 항상 기도에 힘쓴다 > 384
- 제9절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다 > 387

제 13 장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함

- 제1절 성령 충만의 정의 > 394
1. 성령 세례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 > 394
 2. 성령으로 하여금 왕 노릇하게 함을 가리키는 말 > 396

제2절 성령 충만을 받은 효과 > 399

1. 성업을 감당할 수 있음 > 400
2. 죄의 권세와 싸워 이김 > 403
3. 성령의 열매를 맺음 > 411
 - (1) 사랑 · 희락 · 화평 > 414
 - (2)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 417
 - (3) 절제 > 422

제3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 > 424

1. 갈급해야 한다 > 425
2. 악을 버려야 한다 > 428
3. 회개해야 한다 > 432
4. 순종해야 한다 > 433
5. 노력해야 한다 > 436

제 14 장

성령과 사령의 분별

제1절 성령 받음의 특징 > 440

1. '할렐루야'를 즐겨 말한다 > 440
2. 방언을 말하고 영가(靈歌)를 부른다 > 441
3. 마음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 442
4.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 442

제2절 사령 받음의 특징 > 443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 443
2. 세상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 444
3. 참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 445
4. 주절거리는 음성과 속살거리는 말을 한다 > 445
5. 부르짖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졸도하게 한다 > 446
6. 의식불명의 상태가 된다 > 446
7. 교만하다 > 448

8. 기타 현상 > 449

제3절 사령(邪靈)받은 실례(實例) > 450

1.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 450

2. 입에 거품을 문 경우 > 451

3. 질서가 없는 경우 > 452

4.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 > 452

5. 뒤로 넘어지는 경우 > 453

제4절 사령의 침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454

제 15 장

내가 성령 받은 체험담

1. 성령을 받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다

- 임오진(林悟眞) > 456

2. 남편의 변화에 감동하여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다

- 양숙진(楊淑眞) > 461

3. 성령이 크게 강림하여 지반이 흔들리다

- 진양진(陳揚眞) > 463

4. 성령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게 되다

- 사금곤(謝錦坤) > 469

5. 항상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성령을 부어주셨다

- 주아아(朱阿娥) > 476

6. 몸에 번개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왔다

- 간동호(簡東豪) > 479

7. 성령의 세례를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뜻을 정하여 세례(침례)를 받았다

- 임헌생(林獻生) > 483

8.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을 입다

- 오양도(吳揚道) > 486

9. 골방에서 전심(專心)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다

- 양약한(楊約翰) > 491

10. 성령의 세례를 받고 중한 폐결핵이 고쳐지다

- 간익진(簡益眞) > 495

11. '좋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며'에 따라 간구했더니 곧 성령을 받았다

- 이영실(李靈實) > 499

12. 목회자를 반박하여 제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포로가 되다

- 사동벽(謝東璧) > 503

〈성령론〉 한글 번역본이 나오기까지 > 509

성경이
관
무엇
인가
?

■ 제 1 장 ■

무엇이 성령인가?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불분명한 것 같다(고전13:12).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설명이 이미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령에 대한 이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제1절 성령의 위격(位格)¹⁾

어떤 성경주석가들은 영(靈)이란 단어가 원문으로 ‘기(氣)’, 혹은 ‘바람(風)’이라는 뜻으로 성령을 단지 일종의 하나님의 ‘감화력(感力)’이나 ‘생기(生氣)’를 일컫는 말로 이해한다. 그래서 기운과 바람을 성령의 본질(本質)로 이해하고 심지어 성령을 ‘거룩한 바람’, 즉 ‘성풍(聖風)’으로 번역하여 성령이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성령을 훼방하는 죄가

1) 역자주. 저자는 이를 위격(位格)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삼위일체 신관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힌다.

인자를 거역하는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마12:31,32), 만약 성령이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생기(生氣)’에 불과하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사이에서 도합 열세 번이나 성령에 관해서 언급하셨다. 이 때 남성 대명사인 ‘그(他)’라고 표현하셨는데(요14:16,17,26, 15:26, 16:7,8,13,14), 이는 ‘그분(那位)’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실을 보면 성령은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증거한 바를 보아도 성령은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이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 12:4,11).”

그리고 성령은 지(智) · 정(情) · 의(意)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때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이심이 더욱 분명해진다. 첫째, 지적인 면에서 그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창1:1,2, 시104:30),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고(엡4:30), 증거하실 수 있으며(요15:26), 사람을 가르치셨고(느9:20, 요 14:26), 진리로 인도하셨으며(요16:13),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도록 계시하신다(엡3:5). 둘째, 정적(情的)인 면에서 그는 사랑이 있으시고(롬15:30), 은혜를 베푸시며(히10:29), 근심하시고(사63:10, 엡4:30), 위로하시며(행 9:31), 성도들을 대신하여 기도해주신다(롬8:27). 셋째, 의지적인 면에서 그분은 당신의 ‘뜻’이 있고(롬8:27),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며(행15:28), 명령을 내리기도 하시고(행8:29), 일꾼을 보내기도 하신다(행13:4). 그리고 전도를 막 기도 하시고(행16:6), 성직자를 세우기도 하시며(행20:28),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시고(고전12:11), 음성으로 말씀을 주신다(계2:7,11,17,29, 3:6,13,22).

제2절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이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자라면 대체 그는 누구인가? 이것은 극히 오묘한 신관(神觀)의 문제이며, 천 년 동안 내려온 어려운 과제이다. A.D. 325년에 체결된 ‘니케아신조(the Nicene Creed)’에 의해서 기독교는 ‘삼위일체설(三位一體說)’을 이미 확정하였으나 우리는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 바울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였다(고전 2:11). 신관문제(神觀問題)는 하나님의 사정에 속한 일이다. A.D. 4세기 이래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관에서 착오를 일으킨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데 기인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를 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할 뿐이다(요14:26, 16:13, 엡1:17).

레터스(L.L.Lehters)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蘇慕華譯)의 10쪽에서 “성령은 삼위일체의 셋째 분이시다”라고 하였고, 비슬뢰프(F.Wislöff)는 곧 『나는 성령을 믿는다』(戴懷仁, 王永生 공역)의 1쪽에서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神)의 세 번째 거룩한 존재이다”라고 하였다. 사찌요상(佐治良三)은 『무엇이 성령이냐』의 4쪽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적인 존재이시다”라고 하였다. 이들은 분명하게 성령이 인격(또는 위격)적 존재이심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삼위일체의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찌(佐治)씨는 성령을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의 (오류적)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여러 차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성령)와 하나님이 구별된 인격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

1.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다

천지창조 과정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수면에서 운행하신 후에 만물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그 자신의 영’이라고 하셨다(겔36:27, 37:14, 욥2:28, 29).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하여 자신들이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행2:16-18).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라고 하였고, 3장 24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요10:38). 하나님은 영이신데(요4:21),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영이 주님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다.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받은 성령은 곧 ‘아버지의 영’이라는 것이다(마3:16, 눅4:18).

바울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였고(고전 12:6),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2:13)”,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하였다(엡4:6).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기록하였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만유에게 나눠주어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고(고전12:11,7), 야고보도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하였다(약1:17). 위와 같은 근거로 볼 때 성령은 ‘아버지 자신의 영’이시며, 결코 ‘세 번째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적 존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6절 사이에는 빌립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게 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였고(29), 끝에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했다(39). 누가의 신관을 통해서 볼 때 성령은 곧 ‘주 예수’의 영이심을 알 수 있다. 이런 요소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고(6),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 하셨다고 했다(7).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라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하였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다. 천지만물의 창조에 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기는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 후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으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천지만물은 ‘그(예수)’가 창조하셨다고 했다(요1:1, 3, 14, 고전8:6, 골1:16, 17, 히1:2).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요일2:27)”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이란 분명히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요16:13). 요한이 여기서 특별히 밝힌 내용의 초점은 ‘그(주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상징하며, ‘주 예수’의 영을 가리킨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성령은 ‘주 예수’의 영이지, 결코 ‘세 번째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제3절 신관에 대한 탐구

신관에 관한 문제에서 ‘니케아 공회(Council of Nice)’ 이후 천주교와 일반 개신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바로 ‘삼위일체(Trinity)론’이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에 반하는 어떤 신관도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관을 배척하고 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때 ‘삼위일체’의 ‘위(位)’란 ‘인격’(또는 위격)을 뜻하는데, ‘삼위(三位)’란 곧 세 개의 인격(또는 위격)을 의미한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의 인격(또는 위격)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념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28:19)”라는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래에 열거한 몇 구절의 근거들이 있다. 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분 몸 위에 내렸으며, 그 순간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6,17).” ②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항상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기도를 드렸으며(마11:25,26, 14:23, 26:39,42,44), 또한 항상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눅22:32 요17:9-11, 20-23). ③ 예수께서 스스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요14:28)”라고 말씀하셨다. ④ 스테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행7:55,56). ⑤ 예수는 지극히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는 분이시다(롬8:34 히7:22-25 요일2:1).

이런 근거로 하나님이 ‘세 개의 인격(또는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삼위일체론자들조차 하나님이 ‘삼위’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일체(一體)’이시라고 말한다. 곧 셋이 합해서 하나라는 것이다

(요10:30, 14:9,10, 17:21,22). 그들은 진일보하게 해석하여 삼위일체신관(三位一體神觀)이란 ‘일위신삼신신(一位神三神身 Three Persons In One God)’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삼신신(三神身)이란 바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며, 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일한 신성(神性), 동등한 지위(地位), 동등한 영광(榮光), 동일한 무한권능(無限權能), 동일한 영존자(永存者), 동일하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이며, 그래서 그 분은 ‘일위신(一位神)’, 즉 ‘하나의 인격(또는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삼위일체론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된 바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개의 인격(또는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세 인격(또는 위격)의 독립성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삼위일체(三位一體)’도 그렇고 ‘일위신삼신신(一位神三神身)’도 그렇듯이 그 핵심에 ‘유일신(獨一神)’의 관념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삼위(三位)’와 ‘삼신신(三神身)’과 같은 용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신관(神觀)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신관(神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성경의 주제, 둘째, 영(靈) 안에서의 일치, 셋째, 성령의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 등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다. 구약은 구원의 은혜의 계획이고 신약은 그 성취이다. 이 주제를 잘 파악하면 신관(神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그는 천하 만민의 구주시오, 장차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였다(마1:18-25 눅 2:8-11).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요일3:24), 예수께서는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사9:6, 롬9:5). 그분이 강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다(딤후3:16, 요1:1,14).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강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고통의 극한을 경험하신 것이다(시129:3, 32:13-18, 마27:26-50). 또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롬4:25, 고후5:21).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다. 이런 이유로 모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누구도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롬5:6-10, 8:33,34).

그러나 현재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롬8:23, 엡 1:14, 4:30). 하나님의 경륜(經綸)에 의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필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죄인이 형벌을 받고, 의인이 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요5:28,29, 살전4:14-17). 그러므로 승천 후에도 예수는 구속의 사역을 지속하셔야 하며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언약의 중보자로서 선민을 위해 간구하신다(롬8:34, 히7:22-25, 12:22-24, 요일2:1).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제자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으며, 삼천 명이 세례를 받아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건립되었는데(행2:1-4, 41) 이는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사역이었다.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요16:13), 성령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알 수 있으며(마16:15-17, 고전12:3),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례(침례)에 죄사함, 칭의 그리고 중생(重生)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요일5:6,7, 행22:16, 고전6:11, 딤후3:5),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살후2:13).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찌 이렇게 클 수 있는가!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강생(降生),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降臨),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완성함에 있어 필요한 과정이다. 구원의 은혜가 완성될 때, 물질세계는 해멸되어 없어지고 다시는 사람을 유혹하지 않게 되며, 마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다시는 사람을 시험하지 못하게 되며, 교회는 들림 받으며 성도는 다시 범죄하지 않게 된다. 그 때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 사역이 필요 없게 되며, 성령 또한 땅 위에 건립된 교회에 임재하실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근거들에 의해 추론해 볼 때 그리스도가 강생하시기 전, 아직 구속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던 ‘영원한 과거(永遠過去)’의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셨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 후 ‘영원한 미래(永遠未來)’의 때, 하나님은 역시 ‘유일하신 분’이시다. 구속 은혜의 완성을 위해 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은혜 시대에는 마치 세 분(三位)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한 분(一位) 하나님의 사역일 뿐이다. 은혜의 시대 즉, 그리스도의 강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대략 이천 년의 이 기간은 ‘영원(永遠)’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짧은 시간이다.

2. 영(靈) 안에서의 일치(一致)

두 번째 ‘영 안에서의 일치’는 신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성경 안에는 성령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다. 이를테

면 여호와와 신(神)(삿3:10), 하나님의 성령(마3:16), 아버지의 성령(마10:20), 주의 성령(눅4:18), 그리스도의 영(롬8:9), 예수님의 영(행16:7), 그 아들의 영(갈4:6)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명칭은 다양하나 모두 한 분(一位)의 성령을 가리킨다. 이것이 소위 ‘영(靈) 안에서의 일치(一致)’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²⁾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변함없이 하늘에 있는 인자’란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동일한 한 분(一位) 성령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 예수께서 빌립에게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14:9,10)”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靈) 안에서의 일치(一致)’라는 견해에 대한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비록 동일한 한 분(一位)의 영(靈)이지만 예수께서 인자(人子)로 강생하신 이후 구속 은혜의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크다’ ‘작다’의 분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요14:28)”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다는 것인가?

첫째, 아버지의 지위가 아들보다 크시다.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이다.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대로 가르쳤고(요 12:49,50), 심지어 모든 행동과 기도도 아버지의 뜻을 좇아 행했다(요7:6,8, 마26:39).

둘째,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보다 크시다. 그래서 장차 삼 년 동안 복음 전파

2) 역자주. 한글킹제임스 성경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요 3:13)

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가서 사십 일 동안 금식기도해야 했으며 그 후 성령의 충만을 입어 사탄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눅 4:1-15). 이들은 사역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만 했다(막1:35, 눅 5:15,16),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구하셔야 했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이루셨다(요17:4). 이들의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남기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 자신의 필요에 대해 기도하셔야 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보다 크시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고별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보면 그분이 얻은 권능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요17:2). 이러한 권세는 만물을 붙드시며(히1:3),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권세이다(막4:37-41).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異象)(단 7:13,14)과 주 예수의 기도(요17:2)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마28:18,19)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권세는 만민을 다스리는 ‘왕자’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세상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마24:14, 계11:15), 만민이 주의 백성이 되어 그분께 경배하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를 얻을 때(계17:14, 19:16),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異象)과 주 예수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

넷째, 아버지의 존영(尊榮)이 아들보다 크시다. 고별기도 중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라고 기도했다. 이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다(히1:3). 그분이 하시는 일,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들이었다(눅17:15-18, 요9:1-3, 11:3,4,40,

13:31,32, 17:1, 엡1:20).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그는 먼저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인간의 죽음을 경험하셨으며, 부활 승천하시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지극히 높은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마27:29, 눅24:26, 약7:39, 히2:9, 빌 2:8-11).

다섯째, 아버지의 지식이 아들보다 크시다. 아들이 말한 것은 모두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요12:49,50), 아들이 아는 것은 모두 아버지의 교훈에서 온 것이다(요8:28). 그러므로 그가 말세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때 이 모든 전조(前兆)들이 하나하나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말했을 뿐, 정확히 그분이 언제 어느 때 재림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3,36).” 본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중요한 비밀이며, 아버지가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아들도 모르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어디로 가는 것조차도 아버지가 지시하지 않으시면 아들은 알 수 없다(요 7:3-10). 그러므로 아버지의 지식은 무한하고 아들의 지식은 유한하다. 즉 아들의 지식은 모두 아버지의 계시에 의존한다.

상술한 몇 가지 내용을 종합하면 아버지는 지위, 능력, 권능, 존영, 그리고 지식 등이 비록 아들보다 크시지만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은 같은 하나의 영이다. 이것이 소위 ‘영 안에서의 일치’라는 신비이다.

3.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이란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이는 신관(神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